



광주동신여고 2학년 3반의 UCC 응원 "선배, 수능 누워서 떡 먹기죠?"



지난 7일 동신여고 1·2학년생이 참여한 풋볼 퍼포먼스 'Be up'



수능을 앞둔 김도원(광주살레시오여고 3년)양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메시지.

수능, 누워서 떡먹기...시원하게 1등급...'400점 만점' 풋볼기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을 격려하는 후배들의 응원 풍경은 20년째 이어지는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광주시교육청이 올 수능 당일 시험장 앞에서 집단 응원하는 것을 자체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내는 등 교육청의 자체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의 선배 기살려주기 문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어지던 응원 문화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최근에는 응원 동영상(UCC)까지 만들어지는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선배들의 '합격' 바람을 기원하는 응원 문화 변화=수능이 처음 시행된 지난 1993년 응원 열기는 '후끈'했다. 당시 광주일보 등은 수능 날 교가·응원가 경쟁장으로 변한 시험장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추운 날씨에 이불을 두르고 따뜻한 커피와 다과를 나눠주는 '착한' 후배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수능 대박나세요" SNS 달구는 갖가지 응원전

지난 1996년 광주서석고 김도동이라 '氣' 소속 재학생들은 죽도록 들고 나와 시험장 분위기를 장악하는 이색 응원전을 연출하기도 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기발한 플래카드 등이 단골로 등장했다. '내년에는 만나지 말아요', '공통합격구역' 등이 적힌 현수막 응원전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 3시부터 나서는가 하면, 이틀간 다투고 치열했다. 이모티콘 응원메시지는 2002년 휴대전화기 일변화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모티콘 창작대회'를 열기도 했다. 동영상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최근 수능 동영상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광주동신여고의 경우 3회째 수능응원 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다. 학생회는 1·2학년들이 제출한 시원하게 1등급 맞으라는 취지로 만든 '아이스버킷챌린지'(Ice

Bucket Challenge) 응원 영상 등을 선별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지난 7일 유튜브(YouTube)에 올렸고 현재 조회 수 200건을 넘었다. UCC 공모전을 기획한 김서린(2년)양은 "3학년 선배들 전체가 영상에 대한 고마움의 편지를 전달해 예비 고3인 우리도 힘을 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살레시오여고 학생회는 후배, 교직원, 학부모, 학교 인근 상인들의 응원을 17분55초짜리 영상에 담아냈고 3학년 6반 김도원(19)양 어머니는 스캐치북에 쓴 감동의 편지도 눈길을 끌었다.

광주조대여고와 동신여고 1·2학년생들은 수능을 앞두고 학교 앞 운동장에 나와 '400점 만점' 글귀를 적은 도끼와, 'Be up'이라는 글귀를 풋볼로 만들어 선배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기도 했다.

◇20년째 똑같은 부모 마음=고3 수험생들 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뒷바라지

는 시대를 조월한다. 지난 8월 6일부터 광주시 서구 쌍촌동 무각사에는 매일 오전 학부모 60여 명이 찾아와 수능 백일기도를 하고 있다. 매년 무각사를 찾는 부모들의 심정도 한결같다. 지식을 시험장에 데려다 주고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정문에 엿이나 떡을 붙이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도 변하지 않고 있는 풍경이다.

◇경찰도 돕는다=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3일 수험생의 소송을 돕기 위한 콜 센터를 운영한다.수능 당일 112로 신고하면 인근 순찰차와 사이드카가 긴급 출동하게 된다. 수험생 수송을 위해 경찰관 523명, 순찰차·사이드카 95대가 투입된다.

듣기 시험이 치러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시험장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의 경적사용을 자제시키고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은 우회시키기로 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오월길 무빙 콘서트'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맞은편 5·18 사적비 앞에서 전남대 관현악반이 연인에게 '위풍당당 행진곡'을 들려주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오월문화기획단 '달-COMM'이 주관한 이날 공연은 '오월길 무빙 콘서트-달콤한 의자 프로젝트'를 주제로 광주MBC 옛터, 충장로 우체국 사거리, 금남로 공원 등 오월길 핫플레이스 5곳에서 펼쳐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시·도교육청 일부 편성

광주·전남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일부 편성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우선 2개월치 120억원, 전남도교육청은 5개월치 43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교육부가 1조1000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을 승인해 재정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활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는 내년 1~2월분 120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으며, 전남은 5개월분 430억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 2만800명, 전남 2만6080명이며, 1인당 최대 29만원씩 지원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2 해질 17:30 | 가을 20:27 | 가을 09:53

울긋불긋 곱게 물든 가을단풍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5/18 보성 맑음 2/16
목포 맑음 7/16 순천 맑음 5/18
여수 맑음 10/17 영광 맑음 3/16
나주 맑음 2/18 진도 맑음 5/16
완도 맑음 7/17 전주 맑음 3/16
구례 맑음 1/17 군산 맑음 2/15
강진 맑음 4/17 남원 맑음 1/6
해남 맑음 3/17 흑산도 맑음 11/15
장성 맑음 3/17

◇바다 날씨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 북~북동 0.5~0.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0.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생활지수
식중독 36
운동 80
빨래 90

◇주간 날씨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5/15 7/12 3/9 4/14 5/15 6/13 7/13

올해도 광주·전남 '수능한파' 온다

13일 평년보다 2~4도 낮고 강한바람까지 체감온도 푹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광주·전남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4도기량 낮아지면서 반박 '추위'가 예상된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광주·전남지역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의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 12도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평년기온보다 2~4도기량 낮은 수치다.

기상청은 또 "예비소집일인 12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 중 수증기가 적어 비의 양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0일·11일 광주·전남지역의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14~18도 분포를 보였으며, 대체로 맑은 가운데 11일 밤 서해안부터 점차 흐려졌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수능 날 편안한 옷차림에 두터운 외투가 필요하다"며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의 경우 미리 수면양말이나 무릎 담요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3일까지 홈페이지 (http://www.kma.go.kr/weather/special/special_exam_03.jsp)에 수능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박기용기자 pbxer@

빛독촉 여성 2명 살해 주변 30대에 무기징역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7일 빛을 감지 않으려고 채권자와 지인 등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류모(2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박모(25)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장소를 담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는가 하면,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살해 이후에도 피해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30일 밤 11시께 충남 천안에서 빛을 받으려 온 40대 여성 2명을 곡성군 석곡면 저수지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무단 무덤대교 인근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 신용대출 최고 1억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화순아울렛

밀레·라푸마 OPEN!!

MILLET | COLDZERO | Lafuma Effect

061-371-7337 | 010-8288-3579 | 061-375-8998 | 010-3618-9615